

오무라 마스오의 '프로문학' 연구*

정종현**

〈차 례〉

- 청년 오무라 마스오와 신경향파의 만남
- '실증'의 힘; '파스쿨라'와 '염군'에 대하여
- 식민지 프로문학을 바라보는 국제주의적 관점
- '친일의 추억', 혹은 김용제의 모랄에 대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의 전후 1세대 한국문학 연구자 오무라 마스오 교수의 식민지 조선 프로문학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무라 교수는 식민지 조선의 신경향파 문학에 등장하는 광인(狂人)의 형상에서 시대의 억압과 그것을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청년 오무라가 중국문학에서 조선문학 연구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식민지 프로문학과의 만남이었다. 오무라 교수는 실증의 작업을 통해 한국 문학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자료와 시각을 제공해 왔다. 특히 일본 KOPF 조선협의회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에 연속되고 있는, 조선 문제를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일본 좌익 지식인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오무라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문학사에서 망각되고 배제된 시인 김용제에 대한 실증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작가론을 선보였다. 프로문학의 투철한 전위시인이었다가 친일문학의 첨병이 되었던 김용제의 삶에 대해 연민과 비판의 균형잡힌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무라 교수는 자기 민족의 식민주의적 폭력에 대한 직시와 반성,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한국문학에 대한 국제적 접근을 통해서 식민지 프로문학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

[주제어] 오무라 마스오, 프로문학, 카프, 코프 조선협의회, 김용제, 친일문학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4).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청년 오무라 마스오와 신경향파의 만남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1933~2023)는 전후 일본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1세대로 한일 양국의 한국문학 연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학자이다. 오무라 교수의 한국문학에 관한 연구는 총 6권 분량의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¹⁾으로 한국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오무라 마스오의 가족사, 유소년기, 성장기 체험에서부터 한국문학연구, 한국어 교육, 전후 제일 조선인 사회의 움직임 등의 생애 전반을 다루고 있는 대담집이 출판되었다.²⁾

오무라 교수에 대해 연구해 온 장문석에 따르면, 그의 학문적 여정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³⁾ 첫 번째는 안보투쟁을 배경으로 중국문학 연구자였던 오무라 마스오가 제일조선인과 함께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문학을 읽으며 식민주의와 연결된 일본인이라는 정체성과 대결해 가는 시기이다. 두 번째는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인으로 구성된 ‘조선문학의 회’를 결성하고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1970-1974)를 간행하며 한국문학을 번역하고 연구하던 과정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문학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아시아적 지평으로 재구성해 가는 시기이다. 1980~90년대에 오무라 교수는 한국문학사에서 망각된 작가인 김용제, 윤동주와 김학철 등의 엔벤의 문학자, 그리고 제주도의 문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횡단하는 이들 작가에 주목함으로써 한국문학을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김종한이나 김일선 등 일본 제국 내에

1) 오무라 마스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권, 소명출판, 2016~2018. 각 권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권호	제목	옮긴이	출판년도
저작집 1권	윤동주와 한국 근대문학	심원섭, 노혜경, 송태욱, 김용교	2016
저작집 2권	사랑하는 대륙이여 - 시인 김용제 연구	심원섭	2016
저작집 3권	식민주의와 문학	심원섭, 광형덕, 서영인	2017
저작집 4권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광형덕	2017
저작집 5권	한일 상호이해의 길	정선태	2017
저작집 6권	오무라 마스오 문학앨범	소명출판 편집부(지음)	2018

2) 광형덕, 『대담집 일본 조선문학의 선구자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4.

3) 장문석, 「조선문학을 권함 -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소명출판, 2016~2018)과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재구성」,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54, 2019.

서 활동했던 당시의 신세대문학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정년 퇴임 이후 대중적 글쓰기와 심포지움을 통한 연구자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장문석은 오무라 교수의 연구의 여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함께 각 시기별 연구 경향의 변화와 관련하여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 교수에게 질문하다」⁴⁾, 「김학철과 윤동주: 오무라 마스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⁵⁾ 등을 통해서 각각의 단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태원의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⁶⁾ 등 오무라 교수의 학문적 이력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무라 교수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 중에서도 식민지 조선의 '프로문학' 및 카프와 관련한 문학적 인식과 성찰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오무라 교수의 저작집에서 간추린 프로문학 및 카프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오무라 마스오 교수의 프로문학/카프 관련 글 목록]

「코프조선협의회(朝鮮協議會)와 『우리동무』, 『저작집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조선문학과 가나가와(神奈川)」, 『저작집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시인 김용제 연구 - 부보(訃報)와 신발견 자료」, 『저작집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4)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 교수에게 질문하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40, 2016.

5) 장문석, 「김학철과 윤동주: 오무라 마스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 동악어문학회, 『동악어문학』 88, 2022.

6)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61, 2021.

- 『90년대 북한의 프로문학 연구』, 『저작집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나와 조선』, 『저작집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클라르테 운동과 김기진』, 『저작집4 -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저작집2 - 사랑하는 대륙이여 시인 김용제 연구』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김용제』, 『저작집3 - 식민주의와 문학』
 『잊혀져버린 김용제』, 『저작집5 - 한일 상호이해의 길』

안보투쟁을 겪으며 중국문학으로부터 한국문학으로 관심이 이동하던 첫 번째 단계에서 청년 오무라는 특히 식민지 조선의 신경향파 문학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오무라는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에 환멸을 느꼈고 중국문학 연구를 거쳐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사정을 적은 뒤 향후의 각오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문학을 조금씩 공부해가고 싶다. 일조(日朝) 양문화의 상호관련성과 같은 비교문학적 연구보다도, 곤란하긴 할 것이나, 조선민족의 발상·사고방법 그것부터 탐구해 가고 싶다. 그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현대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중의 의미'에서라는 것은, 하나는 당시 일본의 수법을 조선이라는 거울에 날날이 비춰내서, 꿈이여 다시 한번 하고 비는 이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자유가 속박된 인간의, 광명을 얻기 위한 투쟁, 그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이다.

후자에 관해 말한다면, 신경향파 문학에 관찰되고 있는 피압박자 의식, 두터운 벽을 무너트리려 해도, 방화나 강도나 살인 같은 수단 외에는 호소할 길이 없는 폐쇄상황 등등,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현재의 우리 것에 가깝다. 그렇게 비합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스스로가 광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이다. 이 시대의 소설에는 미치광이가 다수 나온다. 이익상의 「광란」, 최서해의 「박들의 죽음」·「미치광이」, 번역된 이태준의 단편소설집에도 미치광이가 다수 등장했던 기억이 있다. 광인의 등장이 보여주는 밝음은, 암야의 촛불처럼, 오히려 주변의

어둠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와중에서 조선민족은 돌파구를 찾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켰던 것이다.⁷⁾ (밑줄 : 인용자)

삼십대 초반의 젊은 연구자 오무라 마사오는 1920~30년대의 조선문학이 1960년대라는 현대에 살고 있는 일본인에게 두 차원에서 지침이 된다고 말한다. 하나는 “당시 일본의 수법을 조선이라는 거울에 낱알이 비춰내서, 꿈이여 다시 한 번 하고 비는 이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가 속박된 인간의, 광명을 얻기 위한 투쟁, 그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청년 오무라는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 개정과 냉전 체제 하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일본 식민주의의 유산을 민감한 촉수로 감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이러한 당시 일본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광명을 얻기 위한 투쟁, 그 에너지의 근원”을 식민지 조선의 ‘신경향파 문학’에서 발견하고 있다. “피압박자 의식, 두터운 벽을 무너트리려해도, 방화나 강도나 살인 같은 수단 외에는 호소할 길 없는 폐쇄상황”이 ‘신경향파 문학’이 처한 환경이었으며, 그것들이 “어느 것이나 현재의 우리 것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신경향파)문학을 만남으로써 청년 오무라는 일본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식민지 문학에 비추어 자기 민족이 실행한 식민주의적 폭력을 접하고, 그 과거를 단절하고 청산하지 못한 채 냉전 체제 속에서 반공주의와 결합되어 지속되고 있는 ‘현대(1960년대)’ 일본의 상황을 아프게 비판하고 있다. 식민지라는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신경향파 문학에 등장하는 광인들의 형상에서 현실의 어둠을 타개하는 ‘부정의 저항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모랄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문학 청년의 결의를 느낄 수 있다.⁸⁾

7) 오무라 마사오, 「나와 조선」, 『조양(朝陽)』 제2호, 1963. 3. 1, 『오무라저작집1』, 692쪽 재인용.

8) 청년 오무라의 식민주의의 문제에 대한 자각과 저항의 의식을 각성시킨 책읽기의 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회고가 남아 있다. “1957년, 대학원에 들어감과 동시에 조선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지만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다. 님 웨일즈의 『아리랑의 노래』와 김소운의 『조선시집』(상, 중)에 접한 것이, 중국 연구의 세계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든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오무

2. '실증'의 힘: '파스쿨라'와 '염군'에 대하여

오무라 교수는 2004년에 『서일본신문』에 기고한 한 글에서 10년쯤 전 한국의 어느 심포지엄에서 윤동주의 독서이력에 관하여 발표했을 당시,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로부터 '민족시인 윤동주가 일본에서 배웠다는 것을 왜 강조하나', 혹은 '그런 사실들을 알기 전과 후 윤동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논하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술회하고 있다.⁹⁾ 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본 연구자들이 실증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고,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는 소홀하다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그렇지만, '실증'은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작업이다. 오무라 교수는 『사진판 윤동주자필시고전집』 작업 중에서 윤동주의 「곡간(谷間)」이라는 시의 퇴고과정을 되짚으며 시인의 의식을 포착했었던 경험을 소개한다. 「곡간(谷間)」은 4연으로 출판되었지만, 원래 원고에서는 총 6연의 시이다. 4연으로 된 인쇄본을 보면 이 시는 조용한 골짜기의 산촌 풍경을 노래한 서경시이지만, 처음의 원고 상태에서는 물싸움을 벌이는 노인과 젊은이, 당나귀를 탄 양반과 말을 탄 일본인이 등장한다. 3년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본인을 보게 되고, 그 일본인이 지나가자 또 다시 산촌에 정적이 찾아왔다고 노래하고 있다. 자필 시고를 '실증'하기 전에는 이러한 윤동주의 (무)의식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오무라 교수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험을 소개하며 오무라 교수는 실증을 경시하는 일군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셈이다.¹⁰⁾

이 사례 뿐만 아니라 실증은 오무라 교수가 진행한 수많은 연구의 토대였다. 윤동주의 묘지를 찾아내고, 그가 읽은 릴케, 잠, 발레리의 시집과 동시대

라 마스오, 「나의 8.15」, 『계간 청구』 23호, 1995. 8. 15, 여기서는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1』, 688쪽에서 재인용) 상세한 독후감은 없지만 님 웨일즈의 『아리랑의 노래』와의 만남이 그의 진로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짧은 진술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오무라 마스오, 「시혼(詩魂)의 유행을 찾아서 - 윤동주 연구(하)」, 『西日本新聞』, 2004. 2. 13. 여기서는 오오무라 마스오, 『조선의 혼을 찾아서』, 심원섭·정선태 옮김, 소명출판, 2007, 91쪽 재인용.

10) 오무라 마스오, 위의 글, 91~94쪽.

잡지와 도서들, 도시샤 대학의 학적부, 판본과 번역의 문제, 운동주의 자필 시고 검토를 통한 초고와 인쇄본의 차이, 필기 습관과 한자의 오자와 오용, 일본식 약자의 사용 등을 밝히고 있는데, 운동주 작품을 둘러싼 이러한 기초 작업은 운동주 문학을 두텁게 해석하는 토대가 되었다. 코프의 '조선협의회'가 간행한 『우리동무』를 미 의회도서관 내 미군 몰수자료에 포함된 일본 내 무성자료에서 찾아내 소개하고 논의한다든가, 미발굴 자료를 포함한 김용제 자료를 모으고 생존해 있던 그와의 서신 교환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작가론을 구성한다든가 등등 오무라 교수는 실증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 시각들을 제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프로문학과 카프를 다룬 글들 중에서 실증을 통해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익숙한 통념을 재고하도록 이끄는 「클라르테 운동과 김기진」¹¹⁾을 따라 읽으면서 몇 가지 주석을 달아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오무라 교수는 우선 “많은 문학사가가 『백조』로부터 돌연 김기진이 나타나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개척했다는 식의 기술을 많이 하고 있”¹²⁾다고 지적한다. 김기진이 로맹 롤랑과 바르뷔스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신경향파 문학의 출발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기진 이전에도 여러 자극과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기진 이전에 김억이 로맹 롤랑의 「민중예술론」을 프랑스어 원문으로부터 직접 번역, 4회에 걸쳐 『개벽』에 연재 소개함으로써 이미 한반도에 알려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문학에 등장하는 계급적 견해라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면, 「예술적 양심을 결여한 우리 문단」¹³⁾이라는 비평을 통해서 문학이 사회 정세 혹은 정치에 관여해야만 한다는 이익상의 견해가 1921년의 시점에 이미 제출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서술은 프로문학 성립에 있어서 김기진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한국의 문학사에 대한 비판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김기진 역할에 대한 과도한 부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무래도 이러한 역사상의

11) 오무라 마스오, 「클라르테 운동과 김기진」, 『저작집4 -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124~137쪽.

12) 오무라 마스오, 위의 글, 125쪽.

13) 이익상, 「예술적 양심을 결여한 우리 문단」, 『개벽』 11, 1921. 5.

성립은 남한에 남아 있던 관련자들의 회고와 서술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단과 함께 카프 관련자들의 대다수가 월북했고 냉전을 거치며 남한의 문학사 서술에서는 김기진과 박영희, 백철 등 전향자의 회고가 주로 활용되었다. 특히 김기진은 회고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러한 역사상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갔다. 김윤식의 기념비적인 저술인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가 팔봉 김기진의 회고의 인용으로부터 프로문학의 출발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이다. 김윤식도 인용하고 있는 회고에 따르면, 김기진은 동경유학 중 아소 히사시(麻生久)와 교류하며 그의 사회주의 문학론에 자극을 받았으며, 특히 ‘뚜르게네프’로 대표되는 제정 러시아의 진보적 인텔리의 의식을 대변하는 ‘복구적’ 문학에 경도되었다고 술회한다. 러시아 문학에 대한 경도와 더불어 팔봉은 자신에게 사상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H. 바르뷔스의 클라르테 운동을 꼽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바르뷔스의 클라르테 운동에 영향을 받아 동인잡지 『씨 뿌리는 사람(種蒔く人)』이 간행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뚜르게네프’로 상징되는 복구문학과 ‘바르뷔스의 민중 운동’은 당시 일본에서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했고 팔봉은 일본 유학 기간 중에 이를 흡수했으며, 이후 친구인 회월 박영희에게 종래의 문학을 청산하고 새로운 문학을 펼칠 것을 설득한다. 백조과의 중심멤버인 박영희의 변화와 더불어 동인은 해체되었고, 이후 박영희와 김기진을 중심으로 사회적 현실에 관심을 둔 문예 그룹 ‘파스쿨라’가 출범했다. 박영희는 『개벽』지의 문예부장이 되었고, 『개벽』지를 중심으로 팔봉과 회월의 비평과 작품들이 발표되며 조선 문단에는 “신경향과 문학이라는 매개적 단계가 시작되었다.”¹⁴⁾ 카프 초창기의 중심인물이었던 팔봉 김기진이나 박영희의 회고에 토대한 이러한 과정은 카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연 김윤식의 저술을 통해 정식화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과 대비되는 관점의 문학사 서술도 있다. 카프의 성립 과정에서 염군사 그룹의 역할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는 권영민의 『한국계

14) 박영희, 「백조 - 화려하던 시절」, 『조선일보』 1933년 9월 14일자.

급문학운동연구』는 그 사례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기진의 매개적 역할로 인해 '백조' 동인이 붕괴하고 '파스쿨라'를 중심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는 경향 문학이 등장하여 프로예맹의 결성으로 이어지긴다는 카프 설명 서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초창기 계급문학운동의 주동 인물이었다던 김기진과 박영희의 증언과 회고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들의 증언에서는 최초로 무산계급 문학운동을 내세우면서 등장했던 '염군사'의 존재에 대한 몰각과 경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영민은 '전향의 축'인 김기진과 박영희에 경사된 이러한 카프 성립사는 '비전향의 축'인 염군사의 존재를 통해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초의 사회주의 문화 운동 단체인 염군사의 등장, 염군사와 사회주의 운동 단체들과의 교섭, 파스쿨라와의 합작, 그리고 조선 프로예맹의 조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계보의 중심인 염군사의 실체를 구명함으로써 프로문단 성립을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타당한 문제설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염군사의 "조직과 그 활동을 설명해 줄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¹⁵⁾고 아쉬워하고 있다.

다시 오무라 교수의 논의로 돌아가 보자. 그는 축자역을 통해 논쟁의 정신을 전하려는 김기진의 번역을 높이 사면서도 그 번역의 오류들을 지적한다. 그는 김기진 등이 중심이 된 파스쿨라와 염군사가 손을 잡고 카프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북한에서는 파스쿨라에 대한 평가가 낮은 반면, 한국에서는 염군사 보다 파스쿨라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문제를 "장래의 문학연구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좋을 것"¹⁶⁾이라고 글을 끝맺고 있다. 오무라 교수가 호명한 '장래의 문학연구자'에 값하는 데까지는 이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카프 성립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남

15)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1쪽.

16) 오무라 마스오, 「클라르테 운동과 김기진」, 『저작집4 -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137쪽.

긴 자료, 즉 회고들과 당대 신문·잡지 등의 문헌자료, 그리고 경무당국의 자료를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은 카프에 대한 온전한 평가 및 이해를 가로막은 큰 원인이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며 남한에서는 반공주의의 제약을 받아 카프와 그 구성원은 물론 해방 이후 재북 혹은 월북한 작가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금지되었다.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카프의 성원이었다가 전향한 팔봉 김기진의 반복적인 회고¹⁷⁾,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나프와 카프의 일원이었다가 전향한 백철의 문학사와 회고¹⁸⁾, 납북된 박영희의 자료와 회고, 우익 문단의 중심이었던 조연현의 현대문학사¹⁹⁾ 등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김윤식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에 이르러 비로소 학술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거꾸로 북한에서는 남한에 남은 전향한 카프 구성원들의 회고나 숙청된 남로당 계열 문인들의 기억과 회고 및 저작은 삭제되었다. 카프와 관련된 기억과 회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당시 상황 등이 섬세하게 분별될 필요가 있다. 즉 회고가 이루어진 것이 카프 당시인가, 해산계 제출 이후인가, 아니면 해방 직후인가 분단 이후인가에 따라서 그 정치적 함의가 사뭇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북한에서 194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중후반에 걸쳐 발표된 카프 관련자들의 회고를 모아 『또 하나의 카프: 북으로 간 카프 맹원들의 집단기억』²⁰⁾이라는 자료집을 간행했다. 이들 북한의 매체에서는 임화와 김남천 등 남로당 계열 카프 맹원들의 기억을 삭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카프를 구성한 문학, 연극, 미술, 영화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17) 팔봉 김기진은 카프 당시에 검거되어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비롯하여 전향한 이후, 다시 해방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카프와 관련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수많은 회고를 남겼다. 카프의 형성과 변화와 관련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팔봉 김기진의 증언은 무수히 반복되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졌으며, 자기중심적 증언과 과장 때문에 검증 없이 활용했을 때에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정파와 카프의 관련성, 자신의 형 김복진에 대한 증언 등이 특히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회고를 포함하여 카프 시대에 당사자들이 남긴 회고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남한의 문학사에서 카프가 다루어지고 있는 방식을 정리한 자료로는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1 - 카프 시대의 회고와 문학사』, 태학사, 1989를 참조할 것.

18)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7;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사, 1949;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5; 『속 -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6.

19)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제1부』, 현대문학사, 1956;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1.

20) 정종현·고자연 엮음, 『또 하나의 카프: 북으로 간 카프 맹원들의 집단기억』, 한국문화사, 2023.

한 핵심 맹원들의 풍부한 당사자 회고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모은 자료집의 간행과 검토를 통해 식민지 프로문예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식민지 프로문학을 바라보는 국제주의적 관점

오무라 교수는 한국문학을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바라보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윤동주, 김학철, 김조규, 심연수 등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횡단했던 작가들의 문학을 성찰함으로써 국민국가의 틀 안에 갇혀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기존의 협소한 시각을 확장하고 심화했다. 카프와 프로문학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오무라 교수의 국제적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된다. 이를테면, 「코프조선협의회」와 『우리동무』는 그러한 폭넓은 시야가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이 논문은 1930년대 전반기 일본의 좌익문화운동에서 조선인 문학자들이 수행한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가, 조선문학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프로레타리아 문화연맹'(KOPF, 코프) 내의 '조선협의회'와 그 협의회가 책임 발행한 『우리동무』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오무라 교수에 따르면, “코프”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최후의 빛이며, 그 속에 설치된 조선협의회와 『우리동무』는 결함이 있긴 하나, 일조(日朝)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한 접점이었다. 오무라 교수는 특히 “1국 1당이라는 코민테른의 방침 하에 행해진 일본의 좌익문화운동의 상당 부분이 실은 조선인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²¹⁾을 논증하고 있다.

오무라 교수가 도해하고 있는 코프 성립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카프 및 프로문학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참조가 된다. 두 단체의

21) 오무라 마사오, 「코프조선협의회」와 『우리동무』, 『저작집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234쪽.

문화 운동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오무라 교수의 설명을 따라가 보자. 명확한 사회주의 원리에 입각한 것은 아니지만 반자본주의적 경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문예잡지 『씨 뿌리는 사람(種蒔く人)』이 관동대지진 때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 탄압에 의해 1923년 10월 폐간되고, 1924년 6월에 『문예전선』이 창간되었다. 1925년 12월 ‘일본프로레타리아문예연맹(프로聯)’이 결성되어 『문예전선』을 기관지로 삼는다. 1년 뒤 1926년 ‘프로聯’이 ‘일본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프로藝)’으로 바뀐다. 그러다가 프로藝가 분열되어 1927년 6월 ‘노농예술연맹(勞藝)’이 만들어지나 다시 그 ‘勞藝’가 분열되어 1927년 ‘전위예술연맹(前藝)’이 생겨나 ‘프로藝’, ‘勞藝’, ‘前藝’의 3파 정립시대가 출현했다. 이후 1928년 3월 15일 일본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1928년 3월 25일에 ‘프로藝’와 ‘前藝’가 합병하여 ‘전일본무산자예술연맹’(NAPF)이 결성되고 기관지 『戰旗』가 발간되었다. 1928년 12월 25일에 다시 나프가 개조되어 ‘전일본무산자예술단체협의회’(약칭은 여전히 나프)가 되고 그 산하에 ‘일본프로레타리아미술가동맹’, ‘일본프로레타리아영화동맹’, ‘일본프로레타리아극장동맹’, ‘일본프로레타리아작가동맹’, ‘일본프로레타리아음악가동맹’, ‘일본프로레타리아가인동맹’을 두고 기관지 『나프』를 발간한다. 오무라 교수는 1928년의 ‘나프’ 결성으로부터 1931년 9월 만주사변 때까지가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전성기라고 요약한다. 이 ‘나프’는 이론면에서 구라하라 코레히토(蔵原惟人)가 지도적 역할을 했고, 작품면에서 고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 도쿠나가 스나오(徳永直),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 등이 활약했다. ‘나프’는 정치성과 계급성을 우위에 두었으며 만주사변 이후 1931년 11월 구라하라의 제안으로 예술가의 공산주의화를 요구하고 ‘프로레타리아문화연맹’, 즉 ‘코프’로 개조되었다. 이후 대탄압으로 지도부 전원이 검거되고, 1934년 3월 활동을 정지하게 된다.

오무라 교수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러한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의 역사는 식민지 조선의 프로문학의 역사와 흡사한 것이다.

카프 초창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색채를 지닌 지식인들이 뒤섞여 활동하다가 1927년 신강령 제정과 두 차례의 방향전환을 통해 문예의 불세비키화를 제창하며 정치성과 계급성을 우위에 두는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이후 전주 사건으로 대대적인 검거 사태를 겪은 뒤 1935년 해산계 제출 형식으로 활동이 정지되는 카프의 역사는 코프로 대표되는 일본 프로문학 운동과 흡사한 궤적을 보였다. 나카노 시게하루의 「비 날이는 品川驛」²²⁾과 임화의 「우산반은 요코하마 부두」²³⁾의 화답 시편으로 상징되는 한일 프로문학 사이의 관련성은 작품을 넘어서 인적 집단의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프 산하의 조선협의회는 그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코프 산하의 조선협의회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지니는 문제성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오무라 교수의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자. 코프는 12개의 가맹단체로 구성되었고, 동맹의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다. 코프중앙협의회가 최고지도부였으며, 그 산하에 이론지인 『프로레타리아 문화』와 대중지 『일하는 부인』, 『대중의 벗』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 조선협의회에서 『우리 동무』를 간행했다. 코프조선협의회가 성립되기 전까지 재일조선인의 (문예)운동을 오무라 교수는 다음처럼 간략하게 도해하고 있다. 1925년 서울에서 카프가 결성되고 도쿄에도 카프 동경지부가 설치된다. 그 후 그 조직과 주요 멤버가 '무산자사'에 합류하여 조선어 기관지 『무산자』를 발행했다. '무산자사'에 대한 일본 관권의 탄압에 의해 조직이 괴멸되고 코프가 결성되자 조선인 문학자들은 '코프' 조직 내에서 일본 프로문학의 일환으로서 활동할 것을 강요당하게 된다. 구 카프동경지부나 재일조선인 연극인, 학생들은 '코프'와 '카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마르크스주의 예술이론을 파악하는 연구단체로서 '동지사(同志社)'를 조직한다. 이 동지사는 1국 내에 2민족 프로레타리아 문예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론상 불가하다고 하는 '코민테른'의 방침에 따라 해소되고 그 멤버들은 분야별로 코프의 각 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일본과 조선이라는 두 민족적 조직의 병렬을

22) 나카노 시게하루, 「비 날이는 品川驛」, 『개조』, 1929. 2.

23) 임화, 「우산반은 요코하마 부두」, 『조선지광』 87호, 1929. 9.

해소하고, ‘코프’ 내의 조선에 대한 무관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코프’ 가맹의 12 단체 내에 각기 조직된 조선위원회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해 조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코프조선위원회는 ‘코프’ 밑에 있으면서 조선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 제 1회, 제 2회의 협의회에서 ‘코프조선위원회’의 임무를 ① 재일조선인의 획득 ② 카프 확대 강화로 규정했다. ‘코프’가 일본의 조직인 이상 과연 국경과 민족을 간단히 뛰어넘어 조선의 프로문화운동의 ‘확대강화’를 자기의 임무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무라 교수는 ‘조선협의회’에 모인 이들은 전원이 재일조선인들이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곧 “일본의 좌익문화운동 추진자들이 짐짓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대한 선량한 이해자인 척하고는 자기 만족에 빠져 본질적으로 자기의 문제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상적 타락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²⁴⁾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패전 이후 일본의 좌익 운동이 조선 문제는 조선인에게 떠맡겼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선인에게 의뢰하는 습성이 바로 이 1930년대부터 시작된 부정적 유산이라는 것이다. 오무라 교수는 “코민테른의 1국 1당제라는 그릇된 방침 때문에 민족모순보다도 계급모순을 우선시키고 민족 조직을 해소하여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에 편입시켜졌던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들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좌익인사들보다도 격렬히 투쟁했으며, 좌절했다고는 해도 일본인보다 안이하게 좌절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무라 교수에 따르면,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마지막 보루가 ‘코프’라고 한다면, ‘코프’의 최후의 진(陣)은 재일조선인이었다.”²⁵⁾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만으로 위원회를 꾸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소환하는 ‘코프’ 중앙의 행태에 대한 오무라 교수의 신랄한 비판은 전후 일본 공산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자신의 문학적 실천에서도 어떤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오무라 교수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조선문학의 회’의 구성원이 일본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조선(문학)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파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이해할 수

24) 오무라 마스오, 위의 글, 246쪽.

25) 오무라 마스오, 위의 글, 264쪽.

있을 것이다.

오무라 교수의 관점과 통찰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코민테른의 1국 1당론과 '12월 테제' 이후 일본, 조선, 중국(만주)에서 활동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겪었던 고충과 운동의 방향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제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과 중국의 프로문학에 대한 오무라 교수의 또 다른 발언을 경청해 보자.

현상 타파를 지향하는 문학청년이 서구의 새로운 사상에 촉발돼 계급적 시점을 품은 문학으로 급진회해 가는 현상은 1920년 중엽의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조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카프(조선)는 1927년의 개혁이라고 해야 할지 개악이라고 해야 할지, 그것을 통해서 이른바 불순한 것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순수한 코뮤니스트만 남고서 아나키스트나 생디칼리스트를 모두 추방하게 돼 점차 조직이 약화돼 가고 말았지요. 그러한 가운데 위로부터 일제의 압력이 가해지자 견디지 못하고 1935년에 해산이 되고 맙니다만, 중국은 오히려 그 무렵에 좌파 세력이 결집합니다. 1930년에 좌익작가연맹이 생기는데 그때 논쟁을 벌이고 있던 루쉰과 젊은 프로 작가들이 함께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나 그밖의 제국주의 세력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발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조선반도에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²⁶⁾ (밑줄 : 인용자)

앞절에서 살펴본 한국 문학사에서 경향문학의 등장에 끼친 김기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관행을 지적한 뒤에 이어지는 진술이다. 오무라 교수의 이러한 서술은 사실과 어긋나거나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카프는 1927년 신강령을 제정하고 아나키스트와의 논쟁, 내용·형식 논쟁, 대중화 논쟁 등을 포함하여 두 차례의 방향전환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치성과 계

26) 오무라 마스오, 「클라르테 운동과 김기진」, 『저작집4 -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129쪽.

급성을 우위에 둔 문학의 불세비키화를 주창하며 카프 동경지부의 소장파가 주도하는 조직으로 바뀌어 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문학의 정치화에 반대했던 루쉰을 비롯해 급격한 사회주의 문학을 주창하던 젊은 좌익 작가들이 함께 참여했던 좌익작가연맹의 예에서 보듯이, 문학 단체의 영역에서 반제국주의적 협동전선의 틀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식민지 조선의 프로문학이 좌편향의 방향으로 경직되어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중국의 사례와 단순 비교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오무라 교수도 지적하듯이, 그것은 ‘코민테른’의 1국 1당제라는 그릇된 방침과 ‘12월 테제’를 통해 조선공산당을 비판하며 그에 대한 인가를 취소한 조처 때문이다. 1928년 7월~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서는 자본주의 3기론과 사회파시즘론이 주창되었다. 코민테른은 1차 세계대전 직후 혁명의 시대인 제1기와 1920년대 중반의 일시적 안정기인 제2기를 지나, 다시 자본주의의 위기인 제3기가 도래했다고 인식했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인 제3기에는 사회민주의자 역시 파시스트에 불과하다는 사회파시즘론이 내세워졌다. 소련을 보위해야 한다는 일국사회주의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제3기론, 사회파시즘론을 토대로 새로운 강령과 테제가 만들어졌다. 새로 만들어진 강령과 테제는 1935년 7차 대회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전술’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방침으로 바뀔 때까지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대회의 식민지 문제 인식은 민족개량주의 반대가 핵심이었다. 1927년 4월 중국의 1차 국공합작 결렬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 위기 3기론’은 진리로 받아들여졌고 대공황은 그 위기를 증명하는 징조로 이해되었다. 조선 사회주의자들도 ‘궁핍해진 민중이 격렬하게 투쟁하기 시작했고 조선혁명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대중 사상이 급진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그 동안 벌여온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가다듬으며 ‘근본적 방향전환’을 도모했다.²⁷⁾

현실적으로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했다. 이 대회에서 1국 1당론이 채

택되고 조선공산당의 승인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12월 테제'라고 알려진 「조선 농민과 노동자의 임무에 대한 테제」는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 승인을 취소한 이유를 알려준다. 코민테른은 '사회주의적 소부르주아 지식인으로 당을 구성한 점'과 '노동자와 연대가 부족했던 점'을 조선공산당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분파투쟁'을 청산하고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 등을 통해 기층 대중 사이에 공산주의 세포를 형성하여 아래로부터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는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9월 테제'와 '10월 서신'으로 알려진 프로핀테른(적색노동조합인터내셔널)과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의 문서도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의 방침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21년에 창립된 프로핀테른과, 그 산하에서 태평양 연안의 운수노동자연합을 토대로 1927년 상하이에서 출범한 범태평양노동조합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프롤레타리아트의 굳건한 혁명적 당'이 없는 상황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노동자 조직을 위한 출판 활동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은 '당재건운동, 혁명적 노·농조합운동, 청년운동, 신간회 해소' 등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경무 당국은 당시 상황을 '과격 한 실천투쟁이 자주 일어나 극좌운동은 날카롭게 벌어지며, 민족해방운동이 계급 종합운동에서 계급 제일운동으로 다시 편성'²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민테른 6차 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승인이 취소된 뒤 기존의 제 분파들이 코민테른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각기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벌이게 된다.

오무라 교수의 설명에 주석을 덧붙이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오무라 교수가 코프 결성 이전의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을 요약하면서 설명한 당시 카프 동경지부 및 무산자사, 이어지는 동지사 그룹 등 사회주의적 정치 활동과 문화 운동을 벌였던 재일조선인 활동가들은 모순되고 혼란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쿄/일본이라는 지역에서의 활동이라는

27) 이상은 최규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44 -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3~23쪽 참조.

28) 조선총독부 경무국, <제72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1937; 한국사연구회 편, 일제하 사회운동사 자료총서 2, 고려서림, 1992, 33쪽.

측면에서는 일본공산당 및 산하 문화운동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이 코민테른의 방침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많은 조선인 활동가들은 한반도 안에서 창설되어 유지되었던 조선공산당의 재건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코민테른의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한 재건운동의 헤게모니와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들의 조직선과 활동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²⁹⁾ 카프 동경지부를 기반으로 한 소장파들은 이른바 엠엘계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기존의 문학사에서 카프 조직내의 돌발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는 ‘군기’ 사건도 이른바 서상파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12월 테제와 프로핀테른의 지침에 맞추어 활동하며 카프 조직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오무라 교수의 식민지 조선과 중국에서의 좌익 문학의 차이에 대한 언급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대해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4. ‘친일의 추억’, 혹은 김용제의 모랄에 대하여

김용제는 일본에서 조선인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로서 가장 용감하게 일본 지배층과 싸웠으며,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4년이라는 세월을 징역과 노동으로 보내면서도 끝내 전향하지 않았던 시인이다. 이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건너와 비전향자의 정체성이 투사된 비평을 고수하다가 내적 전향을 감행한 뒤 식민지 말기에 적극적인 친일문학자로 활동했다. 때문에 해방 이후부터 1994년에 죽을 때까지 본격적인 문학 제도 안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오무라 교수는 이러한 김용제를 직접 인터뷰하고 다양한 기록을 모아 『사랑하는 대륙이여』라는 작가론을 출판했다.

29) ‘무산자사’ 내 조선공산당 재건그룹의 활동과 분열을 재구성하며 막연하게만 언급되었던 엠엘계와 카프 소장파의 관계 및 당시 일본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재일조선인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진웅, 「무산자사 내 조선공산당 재건 그룹의 활동과 분열」, 『한국근현대사연구』 94집, 2020년 가을호.

오무라 마스오 교수의 글은 대체로 그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담하게 논증해가는 서술의 방식을 취한다. 그렇지만 때때로 직접적이고 열정적으로 작가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 말기의 조선인 문학자들의 작품이나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설명할 때 그러한 걱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김용제의 생애와 문학을 다룬 저작집 제 2권의 곳곳에서 표출된 오무라 교수의 감정을 접할 수 있다. 오무라 교수가 김용제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의 일단을 읽어보자.

문학자에 대한 평가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루쉰이 위대한 것은, 만년에 그가 공산주의에 접근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김용제의 오점은 오점이라 치더라도, 그가 목숨을 걸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문학까지도 말소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실사 한국에서 친일문학자로서 규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친일문학을 강요한 일본인의 자손으로서, 비난의 합창에 가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친일문학을 옹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³⁰⁾ (밑줄 : 인용자)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마지막 보루인 “코프”의 최후의 진(陣)은 재일조선인”이었다는 오무라 교수의 평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용제이다. 오무라 교수는 전향 이전의 김용제의 가열찬 투쟁에 대한 경의를 품고 있으며, 그를 조선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전향하게끔 작용한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러한 일본인의 후손으로서 속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용제에 대한 오무라 교수의 열정적인 연구에는 해방 이후 김용제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연민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무라 교수는 해방 이후의 김용제의 처지와 처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30) 오무라 마스오, 「시인 김용제 연구 - 訃報와 신발견 자료」, 『저작집1 - 윤희동주와 한국근대문학』, 367-368쪽.

해방 후 한국에서 김용제는 시종 문단 표면에 나오는 일이 없었다. 나올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올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친일문학으로 나아갔던 김용제는 그 나름의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1) 죄의식, 수치감이 있었든 없었든 남은 반생을 빛이 들지 않는 한국 사회의 구석에서 살아감으로써 그 나름으로 책임을 진 것이다.³¹⁾

1945년 8월 18일,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임화가 김남천, 유진오와 함께 나타나, 조선문인보국회의 재산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자, 문인보국회 상임간사 김용제(1945년 8월 1일부터, 김기진의 뒤를 이은 것)가 인도증서를 쓰게 되었는데, 임화, 김남천은 당연하다고 해도, 제1회,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조선대표로 참가했던 유진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김용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유진오는 조선문인보국회의 상임간사이기도 했다. 그는 기회에 민첩하다고 할까, 김우중의 말을 빌리자면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였다.

덧붙여 말하면,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한국국회를 통과하여, 김용제와 최재서는 하나의 수감에 한 손씩을 묶인 채로, 구제일은행 경성지점의 건물에서 조사를 받았다. 넓은 방에 조사관의 책상에 놓여 있었고, 칸막이가 없었다. 김용제의 옆에서 최재서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최재서는 그 후, 연세대와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고 영문학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김용제는 문학자의 일다운 일을 1994년 85세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³²⁾ (밑줄 및 강조 : 인용자)

첫 번째 인용문에서 오무라 교수는 김용제가 문단에 나오지 않고 빛이 들지 않는 한국 사회의 구석에서 살아감으로써 그 나름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고 평가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조선문인보국회의 상임간사였던 김용제를 찾아온 임화, 김남천, 유진오와의 대면에서 느끼는 소회, 반민특위에서 수감에 한 손씩 묶인 채로 나란히 조사를 받은 최재서와 김용제의 장면이 인

31)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2 - 사랑하는 대륙이여』, 159쪽.

32) 오무라 마스오,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김용제」, 『저작집3 - 식민주의와 문학』, 71~72쪽.

상깊게 묘사되고 있다. 인용을 통해서 제시되는 김용제에 대한 오무라 교수의 인식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1) “죄의식, 수치감이 있었든 없었든 남은 반생을 빛이 들지 않는 한국 사회의 구석에서 살아감으로써 그 나름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는 평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대륙이여』에서는 민족을 위해 친일을 했다는 이광수 등과 대비하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김용제의 처신과 모랄에 대해서 인상깊게 묘사한다. 물론 오무라 교수도 김용제가 평생을 이러한 일관된 모랄을 유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용제가 동양지광사를 거점으로 위장 친일을 하며 독립투쟁을 했다고 ‘고백’한 뒤, 그것을 “한국민족 독립투쟁사에 있어서 공전절후한 기적적 사실이었던 것”³³⁾이라고 회고하는 데 대한 모순점을 꼼꼼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무라 교수는 해방 이후의 김용제의 몇몇 시편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처음에는 친일문학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했지만 그러한 인식이 차츰 희미해지다가 결국 삭제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준 바 있다. 오무라 교수가 제시한 그러한 변화상을 압축하고 있는 시 한 편을 읽어 보자.

<p>[가]</p> <p>8·15 해방의 감격기에도 나는 한 때 친일한 문학의 죄로 대한민국 만세 부를 염치조차 없었다 태극기 흔들며 뛰는 내 어린것들의 그 소리가 가슴을 찢러 부끄러웠다</p> <p>그래서 6·25동란까지도 나는 스스로 예절을 지킨답시고</p>	<p>[나]</p> <p>6·25 한국전쟁까지도 4년간 세상을 피해 도서관에 숨었다 그러나 표면상의 친일은 위장이어서 지하에서는 목숨 건 독립운동을 했다 그 비사(秘史)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동지와 약속한 신의(信義) 때문이다</p> <p>그러므로 나의 양심은 하늘에 맹세코</p>
--	---

33) 김용제, 「고백적 친일문학론」, 『한국문학』 1978. 8, 262쪽.

<p>모든 집합에는 얼씬도 안 했으므로 군자(君子)들과 더불어 만세를 함께 못했다</p> <p>아아 나의 아명을 만수(萬壽)라고 했지만 그 시절에도 소녀보다 수집은 탓에 글방에서도 학교에서도 '반병어리'란 별명</p> <p>그러니 나는 아직 만세윤리학에는 처녀와도 같지만 병어리와도 같다 아마 천지신명께 백 년쯤 수도(修道)해야만 나 스스로 아름다운 인간만세를 아무런 거짓 없이 불러 보고 죽을 것 같다. (「만세」 전문, 1954년 『산무정』 수록)</p>	<p>일제 시대에는 비겁한 흉내만 낸 하룻 밤 애국자보다는 해방 만세를 외칠 바른 자격이 있었다</p> <p>그래도 '나의 인간 만세'로 참았다 (1988년의 <만세> 번역)³⁴⁾</p>
--	---

[가]는 1954년에 발간된 시집 『산무정』에 수록된 「만세」의 전문이다. 이 시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친일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 처럼 만세를 부를 수 없었던 수치심이 잘 드러나 있다. 오무라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적어도 1954년이라는 시점까지는 그가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이어서 1988년 김용제가 일본어로 번역한 「만세」를 소개하며 그 번역 연도를 밝히고, 그것이 번역이라기보다는 개작에 가깝다고 짚막하게 설명한다. 오무라 교수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위의 두 시를 병치시킴으로써 '고백적 친일문학론'에 대응하는 변화가 그의 시창작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무라 교수는 김용제가 사망한 뒤에 나온 두 편의 한국 저널리즘의 기사를 소개하며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시화하고 있다. 하나는 1994년 7월

34) 1988년 김용제의 번역으로 오무라 교수에 따르면 개작에 가깝다. 전체 3연 중 2연의 내용이다. 오무라 마스오, 『사랑하는 대륙이어』, 193쪽 재인용.

3일자 『한겨레신문』의 「언론이 눈을 감는 김용제 시인의 친일」이라는 평론이다. 친일문제연구소의 정운현이 쓴 이 글은 1945년까지 김용제가 행한 수많은 친일 행위를 나열하고, 아울러 1978년 김용제가 쓴 ‘자기변명’을 비판하며 “언론매체가 그의 친일행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샘터』 1994년 8월호에 실린 작가 최인호의 「사랑하는 나의 대륙아」이다. 1993년 말에 김용제를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는 최인호는 이 글에서 “수많은 지식인이 일제시대에 친일을 하였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해방과 더불어 과거를 숨기거나 교묘히 정체를 위장하여 민족주의 작가가 되었으며 명예와 문명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용제 씨만은 다르다.……해방이 되자 스스로 붓을 꺾었다”라는 최인호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⁵⁾ 이처럼 오무라 교수는 김용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김용제에 대한 연민 속에서도 비판의 감각을 잃지 않는 오무라 교수의 태도에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오무라 교수의 김용제론에 대해서 숙고해 볼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무라 교수는 김용제가 남은 반생을 본격적인 문학장에서 활동하지 못했던 것이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김용제의 사회적 불우가 자신의 윤리적 책임감 때문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사회적 제약 때문이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사회적 제약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 만약 그것이 친일문학에 종사했기 때문이라면, 앞의 인용에서 인상깊게 묘사된 유진오와 최재서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유진오는 친일문학의 진용에서 김용제와 함께 활동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다. 알다시피 경성제대 1회생인 유진오는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졸업 이후에는 경성제대 조수와 보성전문 교수를 거쳐 해방 이후 제헌헌법 제정에 관여하고 법제처장을 맡았으며 고려대 총장과 신민당

35) 이상의 내용은 오무라 마스오, 「시인 김용제 연구 - 부보와 신발견 자료」, 『윤동주와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353~354쪽.

당수 등을 역임했다. 유진오 뿐만 아니라 친일문학의 대명사라고 할 경성제대 출신의 최재서 역시 해방 이후 잠시 동안의 고초를 겪은 뒤 연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사상계』 등의 필자로 활동한 바 있다. “기회를 엿보는 데 민첩한 재인”³⁶⁾이라는 유진오나 최재서의 해방 이후의 이력을 가능케 한 것은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력이라는 사회자본의 영향도 그 못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김용제는 주오(中央)대학 전문부 법과에 입학했지만 곧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곧 퇴학당했다. 어쩌면 이들에 비해 변변한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김용제의 빈약한 사회자본이 본격적인 문학장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유진오와 최재서 뿐만 아니라 백철의 경우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깊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나프와 카프 경험과 식민지 말기 친일의 혐의 등에서 김용제와 유사한 궤적을 보인 백철은 동경고사 출신의 제국의 엘리트라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유진오와 최재서 그리고 백철은 해방 이후 대학이라는 지식장에서 교수/학자라는 신분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고 문학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김용제가 “빛이 들지 않는 한국사회의 구석에서”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보도연맹에서의 활동, 한국 전쟁 당시의 미8군 심리작전국 전속작가, 1954년부터 86년까지의 홍사단 이사직 수행과 잡지 『새벽』 편집장,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활발한 글쓰기 등의 활동을 떠올려 보면 그가 부끄러움 때문에 활동을 자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해방 이후 그가 남긴 글들을 일별해도 그 양이 적지 않다. 『홍사단 운동』, 『홍사단 50년사』 등의 홍사단 관련 저작, 『애정 서간문법』, 『현대 서간문』 등의 실용서, 『조만식 전기』, 『이순신』, 『세종대왕』, 『이율곡』, 『안창호』 등의 전기물, 『김삿갓 방랑기』, 『돌아온 김삿갓』, 『방랑시인 김삿갓』, 『이태백 방랑기』, 『소월 방랑기』, 『임격정』 등의 대

36) 오무라 마스오, 『사랑하는 대륙이어』, 177쪽.

중서사물들을 왕성하게 집필했다. 그 외에도 『홍루몽』, 『금병매』, 『손오공』, 『손자병법』, 『오자병법』, 『두보』, 『詩酒에 풍류 신고 - 唐詩 일화』 등 중국문학의 번역서와 더불어 『과계』, 『설국』, 『산의 소리』, 『춘금초』, 『도련님』, 『세설』, 『태양의 계절』 등의 일본문학 번역은 물론 다수의 한국책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물론 이러한 글쓰기는 본격적인 문학장에서는 시민권을 갖지 못한 주변 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무라 교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규범적 문학장에 대한 인식, 즉 '본격문학'이라는 감각에서 보자면 그것은 그리 평가할만한 업적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전후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남한에서 생존을 모색하며 김용제가 걸어간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이력과, 중국과 일본 문학의 번역 및 역사·대중물 창작은 식민지 친일 경력의 문인이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겪게 된 정체성의 변용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곽형덕, 『대담집 일본 조선문학의 선구자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4.
-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김진웅, 「무산자사 내 조선공산당 재건 그룹의 활동과 분열」, 『한국근현대사연구』 94집, 2020년 가을호.
- 박영희, 「백조 - 화려하던 시절」, 『조선일보』 1933년 9월 14일자.
-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7;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사, 1949;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5; 『속 -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6.
- 오무라 마스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권, 소명출판, 2016~2018.
- 이익상, 「예술적 양심을 결여한 우리 문단」, 『개벽』 11, 1921. 5.
- 임규찬 · 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1 - 카프 시대의 회고와 문학사』, 태학사, 1989.
-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 오무라 마스오 교수에게 질문하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40, 2016.
- _____, 「조선문학을 권함 -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소명출판, 2016~2018)과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재구성」,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54, 2019.
- _____, 「김학철과 윤동주: 오무라 마스오의 동아시아 이동과 한국문학의 탈중심화」, 동악어문학회, 『동악어문학』 88, 2022.
- 정중현 · 고자연 엮음, 『또 하나의 카프: 북으로 간 카프 맹원들의 집단기억』, 한국문화사, 2023.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제1부』, 현대문학사, 1956.
- _____,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1.
-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61, 2021.

A study of 'proletarian literature' research conducted by Masuo Omura

Jeong, Jong 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work of Professor Masuo Omura, a first-generation Japanese postwar scholar of Korean literature, on colonial Korean professional literature. In the figure of the madman in colonial Korean Shin-Gyunghyang-pa literature, Professor Omura sensed the oppression of the times and the strong will to overcome it. He explored the strong influence of colonial proletarian literature on the formation of the young Omura. Through his empirical work, Professor Omura has provided materials and perspectives to look at Korean literature in a new light, especially through his empirical study of the KOPF Korean Council in Japan, where he criticized the behavior of Japanese left-wing intellectuals who conveniently exploited the ongoing Korean issue before and after the war. Professor Omura's study of Kim Yong-je, a poet who has been forgotten and excluded from the literary histories of Japan and Korea, is composed with a balanced perspective of compassion and criticism. He offers a just assessment of the life of Kim Yong-je, a poet who was a stalwart of professional literature and a leading figure in pro-Japanese literature. Through his reflection on the colonialist violence of his own people and his international approach and reflection on Korean literature beyond the framework of the nation-state, Professor Omura has expanded the horizons of research on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

colonial professional literature.

Key words : Masuo Omura, proletarian literature, KAPF, KOPF, Kim Yong-je,
pro-Japanese literature